

교회 팀사역의 건강성

하나님께서도 '사람(남성)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창 2:18)' 여성을 만드셨듯이교회에서도 홀로 사역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아무리 규모가 작더라도, 팀이나 조직으로 움직이게 돼 있다. 그리고 아무리 구원받고 변화받은 크리스천들끼리 사역을 한다 해도, 갈등과 문제는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각 교회에서는 이러한 여러 갈등에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모두들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를 내세우기에, 조정과 화해도 쉽지 않다. 그런 이유로 사역이 흔들리거나 결국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교회 안팎의 찬양팀 내에서 갈등이 적지 않고 그로 인해 해체나 분열이 잦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팀이라는 것은 사람이 모였다는 뜻이다. 사람마다 자기만의 생각과 개성 또는 고집이 있기에 의견 차이가 생기기 마련이다. 문제 발생의 요인은 상존한다. 첫째, 관계로 인해 표출되는 문제이다. 신뢰가 깨지거나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뒤에서 비난하거나 때로는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둘째, 서로가 생각하는 팀의 정체성 차이에서 드러난다. 찬양팀의 경우 사역팀인지, 양육팀인지 정체성을 혼동하다 보니 사람이 자주 바뀐다거나 연습을 자주 못해서 발전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밖에서 볼 때 불안하거나 팀이 오래 가지 못하는 일이 있다. 마지막으로 리더에 대한 불신이다. 팀 사역 문제는 대부분 리더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찬양팀 리더들이 리더십이나 팀 사역의 실제에 대해 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보니 관습적인 절대 권위와 카리스마로 해결하려 한다. 그들은 음악적 자질로 리더가 됐지만 의사소통이나 문제해결 능력이 없다 보니 사역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을 성숙한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카리스마 또는 그들이 가진 실력으로 누르려 한다. 자연히 리더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된다.

어떤 교회의 조직과 부서보다도 찬양팀의 90% 이상은 그 어떤 공동체보다 조직적으로 팀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조직은 만들었지만, 조직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의사소통도 힘들고 운영이 힘들어진다. 많은 리더들이 관계성이 부족하고, 본인이 무대의 중심에 서기 때문에 맡은 팀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때 음악성만으로 해결하려 한다거나 하나님의 임재와 영성만을 강조함으로써 해결이 힘들게 된다. 구체적으로 조직인 찬양팀에 의사소통과 리더십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이유이다.

- 백성훈 목사 『팀사역의 원리』

한 주의 기도

'인생의 새로운 진로와 선택이 필요할 때 나의 지체나 욕심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소서. 멀리 떠나 있는 나의 가족이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있는 삶' 을 살며 건강하게 하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10월은 "결실의 달"입니다. 사역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성도로 하나님께 칭찬 받으시라.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으실 축복을 더 많이 받으시라.

1. 금주는 말씀과 묵상, 기도와 순종, 나눔과 격려를 통해 믿음의 성장과 신앙생활의 성숙을 추구하는 주간입니다.
2. 다음 주일(21)은 Christ UMC 의 Youth Sunday 입니다. 청소년들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초등부 사역과 학생들 지도를 위한 협력을 요청 받았습니다. (준비모임: 오전 11:15)
3.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주일 저녁에 설립감사 찬양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동안 준비를 위한 찬양팀의 헌신, 집회를 위한 Relay 기도와 교우들의 협력에 감사합니다.
4. 17 주간 성경 1 독운동이 Oikos 사역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서로 격려하며 점검해 줍시다.
5. 다음 주일(21 일) 3/4 분기 정기제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Oikos 모임을 합니다.
6.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웃, 친구와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삶으로 복음을 나눕시다.

기도 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눈)의 빠른 치유를 위해
3.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4.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5.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6. 주중 성경연구(소선지서/에스라/느헤미야/부흥강의들)를 위해

예배	주일에배기도	10/14	10/21	10/28	11/4
		구민집사	박진성집사	김훈태집사	정줄리권사
예배	금요일배기도	10/19	10/26	11/2	11/9
		오정은집사	유덕하집사	구은강집사	김태성집사
예배	주일헌금위원	10/14	10/21	10/28	11/4
		최내권집사/정줄리권사	김태성집사/최선운집사		
예배	주일안내위원	10월			11월
		구민집사			최내권집사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최고의 계획 / 요한복음 11:1-16**

예수님은 베다니의 삼남매,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와 깊은 친분을 갖고 계셨는데, 나사로가 병을 앓다 죽었다.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한 동생들은 지체하신 예수님을 원망했고,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으로 생각한 제자들도 혼란스러웠다. 나사로의 무덤에 오신 예수님이 무덤 입구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자, 마르다는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난다.”며 예수님을 말렸다. 그러나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난 후에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던 것이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져도 모든 일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조금도 흔들림 없이 평강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지금 나의 믿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 요한복음 11:17-46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는 어떤 하소연을 했을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는 무엇이러 답했을까?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는 예수님을 막아선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르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지금 나의 믿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 요한복음 11:17-46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를 모르는 마르다는 예수께 원망 섞인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가 다시 살아날 줄을 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조문 인사 정도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를 아신 예수님은 마르다의 믿음을 끌어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마르다가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이 때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기에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방금 전에 한 고백에도 마르다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지금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믿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말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텐데, 왜 아직도 믿지 않느냐”고 하십니다. 분명 마르다는 믿는다고 말을 하였는데, 실제로 그녀는 아직까지 제대로 믿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자신이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자신이 믿는다고 말하는 것만큼, 실제로는 믿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르다의 한계였습니다. 마르다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마르다의 믿음은 그저 피상적인 믿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모르는 사람과 비교하여 크게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이는 마르다가 믿음으로 인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눈을 변화시켜 믿음의 눈을 갖게 합니다. 우리의 귀를 변화시켜 믿음의 귀를 갖게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켜 믿음의 입술을 갖게 합니다. 믿음은 절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과 세상의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귀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믿음을 입술로 표현하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의 생각으로, 이성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은 우리의 인격을 지배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피상적인 믿음에 불과합니까? 혹시라도 아직까지 믿음이 삶 전체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면,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그 믿음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J E S U S L O V E S Y O U

섬김의 교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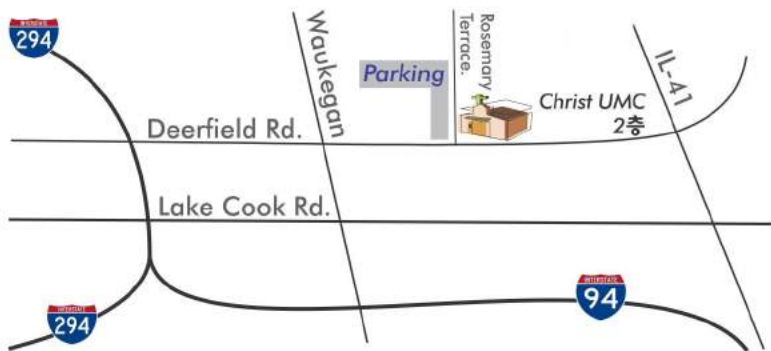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일예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 주일학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30 AM
-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5:40 AM
SATURDAY 6:00 AM
-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 성경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60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www.churchofservant.com

October 14, 2018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

기쁨, 회복, 나눔

섬기는 목회자 : 김정배 목사

결실의 달

믿음의 성장 / 신앙생활의 성숙 추구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누가복음 11:34~35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